

30. 마크 버클러 형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설명해요!

지속적이고 강력하며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4가지 열쇠의 발견.

저는 뒤척이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 수 없었어요. '내가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부모님이 미팅에서 오시기 전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구원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저의 부모님은 저를 바로 목사님의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고 죄인의 기도를 기도하도록 이끌어주셨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저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제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은 제가 15살일때예요.

그날 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10년동안 필사적인 저의 연구를 마칠때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주된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여러 종교들 중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처음부터 지금 여기,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적인 창조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제공해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17장3절)

불행히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님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10장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저희에게 약속하셨지만,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오직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굶주려가고 있어요.

저도 목자의 목소리를 식별하지 못하는 양들 중 하나였어요. 저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갈망하였지만 저는 그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생활 11년째되던 해에 '나는 1년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해야겠어!'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생각에 따라 행동에 옮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노력에 1년을 바치기로 결정하였어요. 저도 몰랐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그 시간을 투자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 해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목소리의 보물상자를 열수 있는 간단한 4개의 열쇠를 드러내주셨고, 이 모든 열쇠들은 하박국2장1~2절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4개의 열쇠를 함께

사용하여 저는 매일 쉽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저의 45년의 기독교 생활에서 제가 가진 가장 변혁적인 단계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시도하여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이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열쇠1: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종종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처럼 들려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박국2장2절 참조). 엘리야는 이것을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묘사했어요. (열왕기상19장12절 참조). 저는 항상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하나님은 때때로 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연스러운 생각, 혹은 흐르는 생각으로 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운전하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나요? 그것은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우연히 떠오른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나요?

경험에 따르면 저희는 영적 수준의 의사소통을 자연적인 생각, 인상, 환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성경구절은 이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인 파가(Paga)의 한 가지 정의는 '우연한 만남 또는 우연한 교차'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저희의 마음에 두실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교차하는 생각의 우연한 만남인 파가를 통해서 하세요. 저희는 그것을 추론하지 않고 우연하게 떠오른 생각으로 고려해요.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싶다면, 우연한 만남, 자연스러운 혹은 흘러가는 생각들에 집중해보세요. 심지어 사탄의 생각들도 자연스러운 생각들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린도후서10장5절 참조)는 명령을 받았어요. 저는 저희모두가 자연스러운 이 악한 생각을 경험하였다고 확신해요. 심지어 저희의 기도와 찬양시간 중에도 공격해요. 그래서 저는 분석적인 생각은 저의 생각이고, 선한 생각은 성령님에게서 온 것이고, 악한생각은 악의 영에게서 나온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생각들은 성경구절과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과 일치해요: 위로자, 조연자, 교사, 생명을 주는자, 치유자, 구원자. 하나님의 생각들은 교화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요. 그 생각들은 순수하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합리적이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야고보서3장17절 참조)

사탄의 생각들은 사탄의 다양한 이름과 일치해요: 비난자, 적대자, 죽이고 흠치고 파괴하러 온 강도. 사탄의 생각들은 비난이고, 절망, 거부, 두려움, 의심, 불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행을 가져와요. 사탄의 생각들은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을 가져와요. (야고보서3장14~15절 참조)

열쇠 2: 하나님의 생각들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고요해지세요.

하박국은 말했어요.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하박국2장1절) 하박국은 하나님의 조용하고, 내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들을 듣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는 먼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자신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시편62장5절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라고 권면하세요. 저희의 육체와 생각을 고요하게 할때 저희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깊은 내적인 깨달음(자연스러운 흐름)이 저희 영안에 있어요. 만약 저희가 고요하지 않으면, 저희는 오직 저희들의 생각들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용한 찬양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요해지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열왕기하3장15절 참조) 저는 찬양을 하고난 후 그 안에서 잠잠해지고, 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저의 마음을 열어요. 만약 제가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나면 저는 그것들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적어놔요. 만약 죄의식이나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르면, 저는 철저히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의 씻음을 받고, 주님의 걸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제 자신을 만들어요. (이사야61장10절, 골로새서1장22절 참조)

깨끗한 초점은 가장 순수한 흐름을 제공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고요해지면서 저의 마음을 제대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시야에서 직관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예수님께 저의 눈의 초점을 맞춘다면, 그 직관적인 흐름은 순수하고 예수님에게서 와요. 하지만 만약 제가 저의 마음의 어떤 욕망에 시선을 고정하면 직관적인 흐름이 그 욕망에 영향을 받아요. 순수한 흐름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고요해지고 조심스럽게 저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해요.

(히브리서12장2절 참조)

다시 말씀드리면, 조용하게 왕을 찬양하고 조용하게 흐르는 고요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대로 저의 기도시간을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예수님은 저희들이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저희는 저희들의 문제들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희의 기도를 시작해요!

열쇠 3: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환영을 받기를 구하세요.

하박국은 말했어요. ‘..기다리며.. 알아보고..’ (하박국2장1~2절). 하박국은 실제로 기도하면서 환영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성경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세상을 보는 것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어요.

다윗왕이 했던 것을 하는 것です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사용하는 좋은 방법은 다윗 왕이 한 것을 하는 것이예요.

‘다윗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2장25절). 원본인 시편은 이것이 다윗의 결심이지 끊임없는 초자연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말 그대로 다윗이 여호화를 모셨어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시편16장8절)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삶을 살면서 그의 마음의 눈으로 그 진리를 보려고 그의 영으로 결심하였어요. 그렇게하면 자신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임을 알았어요.

저희는 말해요.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상상하는 것(마음에 그리는 것)이 마음에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때 끊임없이 상상하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13장34절). 제가 기도시간에 상상을 사용하고 예수님께 저의 눈을 고정할 때, 저는 저의 마음의 언어로 말하고 그것은 저를 마음/영의 현실로 빠르게 움직이게 하여 저의 마음을 초월해요.

경건한 상상력의 사용: 그래서 저는 다윗 왕이 했던 것을 하기로 선택하였고,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상의 것들’ 이라고 제가 정의한 ‘경건한 상상력’을 발전시켰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도 거짓을 상상하는 것이고 현명하지 못한 것이예요.

제가 비성경적인 것들을 상상하고 싶어하는 것을 저는 생각할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저의 오른쪽에 있으신 것이 보여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눈을 밝히시도록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여기에 더해요.

(에베소서1장17~18절 참조) 그런다음 저는 성령님의 흐름에 저를 맞추고 성령님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만드세요. 저는 이러한 경건한 상상에서 신성한 환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이것은 놀랍고 간단하며 어린이의 마음과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한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예요. 저의

6살 손녀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손녀는 자신의 일기와 자신의 양쪽에 서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의 환영을 저에게 공유해주었어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이 4가지 열쇠를 여러분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예요! 그들과 함께 시도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꿈들과 환영들을 주셨고, 특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꿈들과 환영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2장1~4, 17절).

만약 저희가 보고 싶다면 반드시 바라봐야 해요! 다니엘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환영을 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내가 또 보고있을 때.. 내가 또 밤의 환상 가운데 보니..' (다니엘서7장2,9,13절)

그래서 저는 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저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 드리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예수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만약 그들이 오직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들이 흐르는 상상그림을 볼 것이고, 그와 동시에 흐르는 생각들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예요. (마태복음1장23절 참조) 이것은 그만큼 간단해요.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예요. 사실, 그 환영은 정말 쉽게 나타나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유혹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흐르는 상상의 그림을 계속해서 기록한다면, 그 내용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의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의심은 곧 믿음으로 극복될 것이예요.

생활양식: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삶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주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5장19,20,30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방식인가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신성한 주도권에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라고 해요. (요한15장 참조)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세요. 성전의 휘장은 찢어져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있으세요. (누가복음23장45절, 히브리서10장19~22절 참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주워진 하나님의 환영들을 볼 것이예요. (사도행전2장17절 참조)

열쇠 4: 일기.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큰 자유를 가져다줘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환영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하박국2장2절 참조) 이것은 하박국에게만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개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많은 예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많은 선지자의 글들, 요한계시록 등).

저는 이 과정을 ‘양방향의 일기’라고 부르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내면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굉장한 기폭제임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기를 쓸 때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믿는 것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의심이 관련되고 그 의심은 신성한 의사소통을 차단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히브리서11장6절 참조) 일기를 쓰고 그 흐름이 끝났을 때 저는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주의 깊게 다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음을 알기에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5장21절 참조)

의심을 없애요: 의심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의심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환영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세요.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말했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만들려고했어요. (창세기3장1절 참조)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세요! 저희가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자유롭게 흐르세요. (히브리서4장10절 참조)

편안하게 앉아서 펜과 종이(또는 컴퓨터나 아이패드)를 꺼내고 미소를 지으며 찬양과 경배로 여러분의 집중을 주님에게 돌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그런 후 고요해지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여러분은 갑자기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받아 적으세요. 이후에 여러분의 일기를 읽을 때 내용이 놀랍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예요!

빛나는 성경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기초이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굳건한 헌신이 있어야해요. 저희는 성경을 묵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호수아1장8절 참조) 저희가 성경으로 기도할때, 어떠한 성경구절들이 저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을 발견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강력한 또 다른 방법이에요. 정기적인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영적 조언자를 활용해요. 또한 여러분이 견고하고 영적인 조언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의 성장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해요. 일기를 통한 모든 주요 방향의 움직임들은 여러분이 행동하기 전에 조언자들의 확인을 받아야해요. 성경은 두명 혹은 세명의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확증하라고 기록되어있어요. (고린도후서13장1절 참조) 또한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해요. (잠언15장22절 참조)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온유하게 걸으며 여러분의 영적 조언자들을 구하고 조언을 받아세요. 이 단계는 반드시 건너뛰면 안되요!

요한계시록에 4개의 열쇠가 다시 언급되요: 요한은 하박국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4개의 열쇠를 사용하였어요. 요한계시록1장9~11절에서 저희는 요한이 영 안에 있는 것(고요함)을 발견하였고, 그는 그의 뒤에서 “너가 본것(환영)을 책에 기록해라(일기).” 라는 목소리를 들었어요(자연스러운 흐름). 따라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는데 사용되는 동일한 4개의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열쇠의 순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4개의 열쇠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패키지로 이 4개의 열쇠가 작동해요 (멈추다! 보다! 듣다! 쓰다!): 이 4개의 열쇠들이 그 일을 끝내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4개의 열쇠를 함께 사용한다면 이것들은 여러분을 위해 작동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장해요. 이것들을 패키지로 사용해보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일기를 쓰면서 들을 수 있는 무료 다운로드 음악이 있어요. 이 음악은 cwgministries.org/galilee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녹음의 첫번째 부분은 환영으로 갈릴리 바다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게 하고, 4개의 열쇠를 모두 함께 사용하도록 안내해요. 저희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시도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시원한 날에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그리스도님과 완전한 개인적 관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깊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창조적인 빛이 여러분을 통해 가득 차기를 바래요.